

**확실한 그리스도와 하나님나라를
미리 본 스가랴 선지자
-복음으로 여는 스가랴-
스가랴 9:9, 마태복음 21:5**

정윤돈 목사님

- * **속9: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 * **마21: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멩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첫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전 인류가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237나라와 5천 종족,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절대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나라와 현장과 직업과 후대를 위해 생명 걸고 도전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혹시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절대미션과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확실한 응답을 주신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99% 믿는 99명을 쓰지 않으시고 100%, 300% 믿는 한 사람을 쓰셨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하셨다. 차갑게 신앙생활 하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 확실하게 믿으라는 말씀이다. 성경에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토하여 버리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그 사람도 인도하시지만 결국 사탄에게 이용당하며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다니엘과 다윗은 램넛트 때부터 확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할 정도의 믿음을 갖기 바란다. 문제를 바라볼 때도 대충 바라봐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으면 확실하게 붙잡아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 남탓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확실한 응답이 뭔지 찾아내라. 그게 언약이다. 그럴 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세상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언약 속에서 여러분에게 CVDIP를 확실하게 보여주신다. 그게 보일 때까지 계속 집중해라. 제가 보니까 목회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창조적인 목회를 두고 기도한다. 기도할 때 Heavenly Talent가 나오더라. 세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을 어떻게 전도의 플랫폼으로 만들지 기도했다. 그렇게 응답 받은 게 서밋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제게는 스키와 보드였다. 응답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다. 내 주변에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살리면 된다. 여러분의 문제의식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 다 된다. 스가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시고, 고레스 왕에게 역사하시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회복시키셨는데 십여 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성전재건을 미뤘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 되는 이유만 찾는 사람이 있다. 창조적인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다. 어느 직장에서도 아무 것도 안 하면 나와 타인을 파괴시키게 된다.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교회는 다 문을 닫는다.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일 안 하고 도전 안 하면 그 나라와 민족, 개인은 다 망한다. 사실은 파괴되는 것이다. 가치있는 인간으로 태어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아무 것도 안하며 방대한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깨닫는 순간 응답이 시작된다. 대단한 걸 하라는 말이 아니다. 깨달으면 변화하게 된다. 언약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아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가 가장 잘 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라. 그리고 강단을 생명처럼 붙잡아라. 강단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응답이 있지만 단지 비판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얻을 게 많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다. 학개와 스가랴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며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미 다 회복됐는데도 왜 응답이 없는지 질문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를 세웠다고 하신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에게 미래의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진정으로 문제를 두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5백 년 후의 미래를 보여주실 것이다. 저는 30년, 백 년 후를 보고 목회한다. 3백 년과 5백 년 후를 두고 기도한다. 초대교회가 핍박받았지만 3백 년 후에 로마는 복음화되었다. 초대교회는 단지 단기적인 교회의 부흥을 보지 않았다. 천 년의 응답을 바라봤다. 천 년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스가랴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예언들이 많이 나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 장면을 약 5백 년 전에 예언했다. 참된 성전재건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던 스가랴 선지자는 확실한 그리스도와 주님의 왕국을 미리 보았던 것이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 CVDIP를 확실하게 봤다. 여러분에게 그 꿈과 비전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전도 고민, 교회와 성도, 후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고민이 있기를 바란다.

1. 스가랴를 통하여 약속하신 중요한 언약의 말씀들을 찾아보겠다.

(1) 스가랴 1장 3절 중간을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니라”라고 말씀한다. 또 스가랴 1장 4절 중간에는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와 같이니라”라고 말씀한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은 먼저 나부터 돌아오고, 세상의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기 바란다. 그게 전도자의 사명이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다. 전도를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일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2) 두 번째로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스가랴서 3장 4절에는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아름다운 영적 옷’이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복음이다. 십자가 구속의 사건, 재림과 심판, 오직 예수다. 여러분은 이 옷만 입어라. 제3자가 봤을 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만 보이기 바란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구나’ 찬 옷을 입어도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 영적 아름다움이다.

(3)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스가랴 4장 6절

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이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모든 것이 절대불가능이다. 중독을 끊는 것도, 악한 습관을 끊는 것도, 죄를 끊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일을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도, 순종을 안 했던 사람이 순종하는 것도, 전도를 안 했던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것도 다 절대불가능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서 온다. 말씀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백 번, 천 번 예배를 드리다가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사람을 성령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원드린다. 힘과 능이 아닌 성령의 역사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렇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시간표가 올 줄 믿는다. 이번 주의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을 듣도록 하겠다.

(4) 네 번째, 이제는 징계하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스가랴 8장 1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징계를 받고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 왕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면 끝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기셨다. 대통령이 마음이 바꾸고 사면복권하면 끝이다.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목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이다.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방향과 목표가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교회’라면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스가랴가 바로 이 마음이었다. 오직 전도, 오직 교회의 마음이다. 여러분이 만약 바른 길을 가더라도 어디를 가는지 모르면 도달할 수 없다. 정확한 목표가 있으면 다른 길을 가더라도 도달한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전도, 선교, 후대, 237나라, 5천 종족, 모든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라면 사실 게을러도 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천 배, 만 배로 개인과 후대를 축복하셨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란다.

(5) 다민족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 스가랴 8장 23절 중간에는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40나라 현장을 가보고 현장을 봤다. 그리고 지금 선교현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병원과 학교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병원을 짓고 치유센터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치유의 땅대를 위해 우리 교회가 마중물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현금해야 할 게 많지만 여러분에게 감동되고 응답을 받는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된다. 마음껏 목사님이 세계복음화 하도록 후원하는 후원자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란다.

(6) 또한 그 날에는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민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셨다. 스가랴 9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와 땅에 빛나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이 렘넌트, 치유, 서밋의 언약이다. 여러분이 이 언약의 길을 가기를 바란다. 제게 이 언약을 주셨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믿음의 실상이 있으면 인생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 여러분은 스가랴 선지자처럼 그 약속이 올 때까지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을 뿌려야 한다.

(7) 흠어진 자와 디아스포라와 그루터기, 즉 렘넌트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 스가랴 10장 9절에는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흠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

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비록 핍박과 어려움으로 흠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신다. 스가랴 한 사람 때문이다. 시대마다 요셉 한 사람, 다니엘과 세 청년, 소수의 사람들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란다. 많은 교회가 필요 없다. 우리 교회가 그 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많은 나라가 필요 없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그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8) 결국에는 우상과 사탄과 귀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다. 스가랴 13장 2절에 보면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저는 우리나라에 무속, 점술, 우상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 국회의원들이 다 점쟁이를 찾아간다.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2.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스가랴서 9장 9절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 이 예언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성취되었다. 스가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니 하나님은 5백 년 전에 그리스도가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도 전도의 고민을 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고민을 해라. 이제는 AI시대에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해졌다. 오히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한다. 잘 활용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불신자들도 정보화시대를 두고 고민을 하는데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참사랑교회에 정말 산업선교 팀이 필요하다. 이익만 보는 팀이 아니라 정말 3단체를 능가하는 사람이 후대 중에 나와야 한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는 십자가에서 못과 창에 찔림 받을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성취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찔리셨다. 이 모습을 미리 보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셨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에는 은 삼십에 팔리신 메시야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언하셨다.

(2) 두 번째로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하여도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다. ① 스가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는 그 날에 여러 나라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여러 나라가 그 날에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교가 되는 응답을 이미 스가랴에게 주신 것이다.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② 또 스가랴서 14장 9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왕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다.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맞지만,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다.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다른 목표를 주지 않으시고 생명을 살리는 절대목표를 주셨음이 감사하다.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끝으로 스가랴 선지자처럼 복음집중, 말씀집중, 땅끝집중을 통하여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의 언약을 성취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 귀한 말씀과 언약, 약속, 축복, 미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스가랴와 같은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